사례23. 청신경종(acoustic neurinoma) 수술 후 안면신경마비의 발생빈도

개나리병원 홍길동과 차돌바위는 '청신경종(acoustic neurinoma) 수술 후 안면신경마비의 발생빈도: 전향적 연구'라는 제목의 논문을 2006년 국내학술지에 발표하였다. 저자는 총 10명이었다. 연구기간은 2003년 3월부터 2004년 2월로 총 12개월간이었고 대상 환자의 수는 18명이었다. 합병증이 발생된 환자는 2명으로 11.1%의 합병증 발생빈도를 보였다. 2006년 유사한 제목의 후향적 연구가 다른 두 번째 학술지에 발표되었다. 저자는 총 8명이었으며 홍길동이 책임저자였다. 연구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총 4년 5개월이었으며 대상 환자의 수는 115명이었다. 합병증이 발생된 환자는 12명으로 10.4%의 발생빈도를 보였다. 2006년 유사한 제목의 논문이 국내 또 다른 세 번째 학술지에 게재되었다. 저자는 총 6명이었으며 차돌바위가 책임저자였다. 세 번째 논문 저자에 홍길동이 포함되었다. 연구기간은 1998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총 6년이었고 대상 환자의 수는 142명이었다. 합병증은 11명으로 7.7%의 발생빈도를 보였다.

구성 요소별 판정

항목	내용	판정
저자와 소속	두 과 의사가 공통으로 참여	공저자 1명 이상 공통
가설	청신경종(acoustic neurinoma) 수술 후 안면신경마비의 발생빈도는 10% 전후임	유사
대상	시기가 다르며, 따라서 대상 환자의 수도 다름. 그러나 기간이 중복되어 대상 환자 역시 중복	대상의 중복
연구방법	기술 분석	동일
결과	세 번째 논문에서 합병증 환자의 수가 감소하였음	일부 결과가 상이
새 정보	결과가 약간 다르게 발표되어, 과학성의 문제점을 야기	없음

추가 사항

항목	내용
발표 학술지 관련	2006년에 동시에 각각 다른 3종 학술지에 발표하고 앞의 논문 인용 있음
표	표는 모두 3개. 표 체재는 유사, 내용 다름
그림	모두 1개, 그림의 내용은 다름
참고문헌	첫 논문 19개, 두 번째 논문 21개, 세 번째 논문 24개. 그 중 12개씩 동일
연구비 기술	모두 기술 없음

해설

항목	내용
중복출판	모두 3종 학술지에 출판하면서 환자 증례 수집 기간이 차이가 있음. 합병증 발생률은 논문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 수 없음 • 유형: 대상 또는 관찰기간을 늘인 덧붙이기출판
다른 윤리 문제	세 번째 논문의 연구기간과 대상 환자의 수가 많았음에도 합병증 환자의 수가 적어 합병증의 판정 기준의 차이 또는 대상 선택 편향(selection bias)이 의심됨